**※ 참조**

수식을 만들어 가면서 수식에서 필요로 하는 값들을 수식에 값 자체를 삽입하는 것이 아닌 값이 들어있는 셀을 수식으로 사용하는 것.

**※ 상대 참조**

참조를 하여 수식을 쓸 때 $표시를 붙이지 않아 수식에서 참조한 셀들의 주소도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변환되어 지는 참조 방식.

Ex) E3 셀에서 =B3 + C3라는 수식을 사용하고 그 수식을 드래그를 통해 A4로 복사하였을 때 E4의 수식이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이동한 =B4 + C4로 바뀌게 된다.

|  |
| --- |
| * E3에 B3 + C3인 식을 넣고 E4로 드래그 하여 복사해준다.      * E4에는 E3의 식이 같은 방향 같은 크기만큼 이동한 B4 + C4의   식이 들어가게 된다. |

**※ 절대 참조**

절대적인 참조로 상대참조처럼 수식을 복사한 방향에 따라 셀 주소가 변하지 않고 셀의 주소 앞에 $표시를 사용하여 셀을 참고한 수식을 어디로 복사하더라도 그 참조한 셀의 주소가 변하지 않게 하는 참조이다.

Ex) E3 셀에서 =$B$3 + $C$3라는 수식을 사용하고 그 수식을 드래그를 통해 E4로 복사하였을 때 A4에도 B3셀과 C3셀을 더하는 B3 + C3인 식이 들어가게 된다.

|  |
| --- |
| * E3 셀에 $B$3 + $C$3의 식을 넣고 E4로 드래그 하여 복사해준다.      * E4 셀에는 $표시로 셀의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E3와 같은 수식인   $B$3 + $C$3의 식이 들어가게 된다. |

**※ 혼합 참조**

상대 참조와 혼합 참조가 뒤섞인 것으로 열은 절대 참조를 하나 행은 상대 참조를 하는 것(ex. $B4)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.

Ex) E3 셀에서 =$B3 + $C3라는 수식을 사용하고 그 수식을 드래그를 통해 E4로 복사하였을 때 A4에는 B3셀과 C3셀을 더하는 = B3 + C3인 식이 들어가게 되고 F3로 복사를 하였을 때는 상대 참조일 경우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이동을 하여 C3 + D3의 계산을 하는 식이 들어가겠지만 $표시를 통해 B행과 C행으로 고정을 해 놓았으므로 B3 +C3의 계산을 하는 수식이 들어가게 된다.

|  |
| --- |
| * E3에 $B3 + $C4의 식을 넣고 E4로 드래그 하여 복사해준다.      * E4에는 행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위치 같은 크기만큼 이동한   $B4 + $C4의 식이 들어가게 된다.     * F3에도 E3의 식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$표시로 B열과 C열로 고정이 되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이동한 C4 + D4의 식이 아닌 $B3 + $C3의 식이 들어가게 된다. |